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12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11월 18일)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 “세계청년대회 특별법은 가톨릭에 편향된 지원법”

##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 회의서 지적

**여야 국회의원들 특별법 발의**
**종교행사에 국무총리가 위원장**
**행사시설 10년간 국비지원 명문**
**“법률 검토 및 대응” 한목소리**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027년 서울에서 세계청년대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이 행사 주체인 가톨릭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위원장에 국무총리, 부위원장에 장관 이름이 명시돼 정교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는 12월 9일 ‘불기2568년도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이 제정될 경우 다종교 사회에서 타 종교와의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 교회가 1986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세계 젊은이의 날’의 국제행사로 2~3년 마다 교황이 지정한 교구에서 대규모 국제 종교행사를 개최한다. 2023년 8월 포르투칼 리스본 테주공원에서 열린 세계청년대회 폐막일 미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7년 차기 대회 개최지로 한국을 발표하면서 행사 준비가 급물살을 탔다. 국내 가톨릭은 대회에 약 80만명에서 10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언급된 문제의 특별법안은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 59인이 제출한 ‘2027년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이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세계청년대회 관련 주요 정책 심의·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정부지원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장에 국무총리, 부위원장에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원에 국무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또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행정·재정적 협조 및 지원과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 발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11월 8일 심사 회부된 상태다.

이와 함께 11월 19일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 11인은 같은 제목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계청년대회 이후 국제순례지에서 국민의 종교문화와 여가활동 활성화 및 국제 친선활동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총무분과위원 선광 스님은 “제출된 법안은 특정 종교 대회를 위해 만든 특별법으로, 발상 자체가 종교 편향”이라면서 “법안을 제지하는 일부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만당 스님은 법률안을 조목조목 따졌다. 스님은 “법률안 제19조에 세계청년대회 관련 시설 시설 신축 개보수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운영비를 포함한 모든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면서 “특정종교 행사 지원을 넘어 향후 10년에 걸쳐 운영비까지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 종단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 제18조에서 규정한 정부지원위원회 구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위원장 심우 스님은 “국무총리를 포함한 주요 장관들이 특정종교 행사를 위한 위원회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명백히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우 스님은 “세계청년대회를 대비해 일부 광역자치단체 및 지자체 등에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들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한국사회에서 특정종교만을 위한 사업과 그에 따른 막대한 보조금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다종교사회인 한국사회에서 종교간 차별과 편향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예상됨에 따라 종단차원의 대응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들은 대회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드러냈다. 정범 스님은 “다른 나라에서 행사 규모를 살피고, 실제 참석 인원을 면밀히 조사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모니터링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설해 스님은 이번 대회 조직위원회에 조계종 스님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종단 차원에 관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총무분과위원회는 총무원 총무부와 기획실, 사회부에 꾸준한 모니터링과 함께 법안의 위헌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법안 통과 저지와 폐기를 위한 대응조직 구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기사 3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연말을 맞아 12월 10일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와 의정부 영아원을 방문해 아이들의 건강한 앞날을 기원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아이들을 위한 ‘고운 생각 고운 얼굴’ 이라는 격언을 직접 붓글씨로 써서 전했다. 또한 아이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 30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 “고운 생각 가진 인재로 자라나거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12월 10일 자비 나눔 방문**
**경기 아동일시보호소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2월 10일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와 의정부 영아원을 방문, 아이들의 건강한 앞날을 기원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자비나눔 방문에는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사회부장 도심 스님,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 봉선사 총무국장 보관 스님이 참석했다. 윤기원 대한사회복지회 이사장, 강대성 대한사회복지회 회장, 이상엽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소장, 김수진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영아원장과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동참한 가운데, 영화 ‘대가족’의 이승기·김성령 배우, 양우석 감독도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곳으로 학대, 결손, 기아 등의 사유로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0세에서 만 18세까지 아동을 보호한다. 이날 진우 스님은 보호소의 시설 전반을 살피고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신생아들을 보호하는 영아반에 이어 아이들이 공부하는 장소 등을 살펴본 진우 스님은 “세대와 계층을 막론하고 불우한 이웃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호시설의 발전이 절실하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환경이 마련되고 부모를 위한 정신 건강 돌봄 체계도 준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라운딩을 마친 진우 스님은 시설 발전을 위한 자비나눔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어 진행된 ‘붓으로 그리는 희망 이야기’는 진우 스님이 아이들을 위한 덕담을 직접 붓글씨로 써서 전달하는 행사였다. 두 팔을 걷어붙이고 붓을 든 진우 스님은 아이들을 위해 ‘고운 생각 고운 얼굴’이라는 글귀를 썼다. 의정부=김가령 기자

# 진우 스님 “세계명상의 날 환영…선명상 대중화 박차”

**조계종 ‘UN 세계명상의 날’ 제정 논평**

UN이 12월 21일을 ‘세계명상의 날(World Meditation Day)’로 제정한 것에 대해 조계종이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12월 11일 총무원장 진우스님 명의로 환영문을 냈다. 진우 스님은 환영문에서 “조계종은 10월 8일 뉴욕 UN본부를 방문해 세계명상의 날 제정을 위한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다”면서 “사부대중의 평화를 위한 염원들이 세계명상의 날 제정에 기여됐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UN 세계명상의 날 제정을 계기로 우리 종단에서는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더 한층 박차를 가해 우리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에 이를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UN은 12월 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한 제79차 유엔 총회에서 ‘세계명상의 날’을 제정하자고 제안한 결의안을 만장일치 채택했다. 이들은 “모든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면서 “모든 회원국과 지역 기구, 비정부 기구 및 개인을 포함해 시민사회가 적절한 방식으로 세계명상의 날을 기념해 명상의 이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임은호 기자

다음 호는 2025년 신년특집호
1월 1일자로 발행됩니다.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는 혁신적 상상력으로 미래를 선도할 글로벌 리더를 육성합니다.

혁신과 상상이 즐거운 대학
경계를 허물고 함께 성장하는 대학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

2025학년도 정시모집 2024.12.31.(화) 10:00 ~ 2025.01.03.(금) 17:00